

이 땅의 진정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건축가들의 대표적인 건축 전문 사회단체

BUSAN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NEWS 01 창립60주년 기념행사

NEWS 02 부산국제건축대전

NEWS 03 청소년건축상상마당

NEWS 04 부산건축도시사진전

NEWS 05 젊은건축가위원회 전시 Objet 展

NEWS 06 젊은건축가를 위한 워크숍

NEWS 07 건축탐방

NEWS 창립60주년 기념행사



📷 _ 창립60주년기념행사 (단체사진)



📷 _ 창립60주년기념행사 (자체평가 간담회)



📷 _ 창립60주년기념행사 (KNN 캠페인)



📷 _ 창립60주년기념행사 (인터뷰)



📷 _ 창립60주년기념행사 (포토라인)



📷 _ 창립60주년기념행사 (축사)



📷 _ 창립60주년기념행사 (답사_부산회장)



📷 _ 창립60주년기념행사 (특별공로상)



📷 _ 창립60주년기념행사 (케이크커팅식)

창립60주년기념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2년 10월 28일(금)
APEC 누리마루 2F 회의실

🗣️ 슬로건

열정의 건축가

🗣️ 비전선포 (ARCH)

Action 행동하는 건축가
Reviving 되살리는 건축가
Creative 창조적인 건축가
Honorable 명예로운 건축가

📝 작성 | 박미경 (2023. 2. 2)

부산건축가회의 60주년 행사가 ‘열정의 건축가’라는 슬로건 아래 2022년 10월 28일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되었다.

부산건축제 행사기간에 맞추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 (사)한국건축가회와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을 비롯한 부산건축가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고, 동래학춤 등의 문화공연과 특별상 시상, 앞으로 60년에 대한 부산건축가회의 비전을 선포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50주년 이후 10년 동안의 활동과 선배 건축가들의 건축과 부산건축가회에 대한 열정을 담은 인터뷰영상을 상영하였는데, 이 동영상에서는 건축가회 창립의 의미와 도시발전의 노고에 대한 감사함과 부산건축가회의 가치와 정체성, 사회에서의 방향성과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60년에 대한 비전은 이봉두 수석부회장이 선두에서 진행하였고, 행동하는 건축가, 되살리는 건축가, 창조적인 건축가, 명예로운 건축가의 4가지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는 건축가의 자긍심과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지구환경과 생태계 보존에 대한 건축가로서의 역할과 의지를 담고 있다.

특별상은 부산건축가회를 위해 끊임없는 봉사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오철호, 강영자, 정희웅, 김정기, 강주연, 이인미, 이장민, 이병욱, 안현조가 수상하였다.

이번 60주년 행사는 행사준비위원회에서 진행하였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부산건축가회의 역사와 활동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건축가들의 수고로움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부산건축가는 ‘열정의 건축가’이다.

NEWS 부산국제건축대전

공공성의 재구현

THE 38TH
BUSAN
INTERNATIONAL
ARCHITECTURE
COMPETITION
2022
제38회 부산국제건축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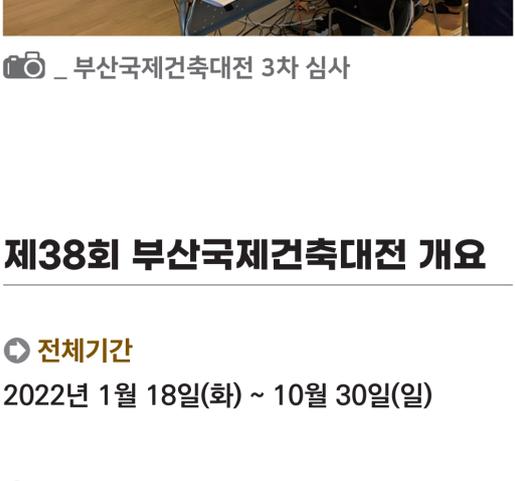
www.kiabb.org

부산국제건축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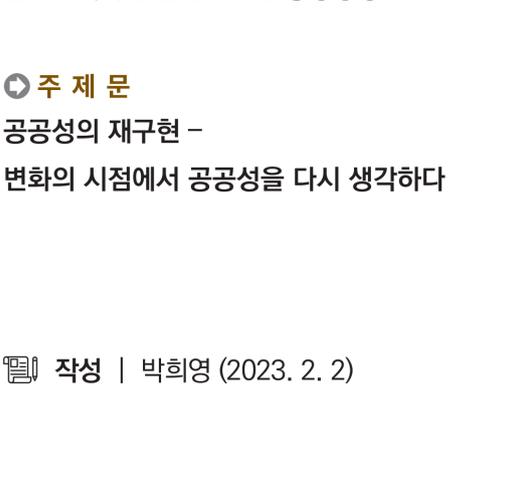


Rethinking publicity from the perspective of change

📷 _ 38th BIAC 포스터



📷 _ 부산국제건축대전 2차 심사



📷 _ 부산국제건축대전 3차 심사

제38회 부산국제건축대전 개요

🕒 전체기간

2022년 1월 18일(화) ~ 10월 30일(일)

🕒 전시기간

2022년 10월 13일(목) ~ 10월 17일(월)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2022년 10월 26일(수) ~ 10월 30일(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중앙광장

🗣 주 제 문

공공성의 재구현 -
변화의 시점에서 공공성을 다시 생각하다

📝 작성 | 박희영 (2023. 2. 2)

‘공공성의 재구현_변화의 시점에서 공공성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타이들로 진행된 제38회 부산국제건축대전 일반공모가 9월 27일 3차 심사를 끝으로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주제는 2019년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한 거리두기, 격리 등 우리 사회에 생소한 용어들의 등장과 이를 토대로 진행되어 온 온라인 커뮤니티 등 기존에 정의되었던 공공성과는 사뭇 다른 의미로서 작동하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3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진행된 공모전인 만큼 이번 공모전 또한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에서 많은 작품들이 응모되었다. 특히 2년 연속 400개 이상의 응모신청은 대한민국 학생공모전에서 부산국제건축대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총 315개의 작품이 제출된 이번 공모전은 3회에 걸친 심사과정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온라인심사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최종 당선작은 AATU(Tianjin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Architectural Design and Urban Planning Co., Ltd, 이하 중국톈진설계원)의 Guo Jiaqi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은 동의대학교 한시훈과 중국 Tianjin Renai College의 Wan Yuchen에게 돌아갔다. 이밖에도 특선 6개, 장려 10개 그리고 입선 81개의 작품 등이 선정되었다. 특히 대상작, 주제에 대한 접근과 개념의 전개 등에서 탁월한 표현으로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선정하였다.

이상혁 심사위원장은 이번 심사과정을 통하여, “코로나-19시대 이후 전개될 우리 사회의 공공성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총평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젊은 건축가들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22회 부산국제건축대전부터 이어져 온 완공건축물부문에서는 강기표(건축사사무소 아체 ANP)의 LINE25, 강대화(건축사사무소 토탈)의 트루바이 생림 리모델링 그리고 이봉두(주)한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WES(임랑)의 풍경을 담아내는 카페 등 3개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일반공모와 완공건축물부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건축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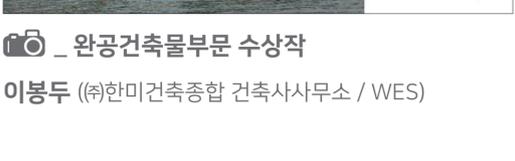
📷 _ 일반 대상작

Guo Jiaqi (Tianjin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Architectural Design and Urban Planning / SUPER CARE SITE)



📷 _ 일반 우수상

한시훈 (동의대학교 / Horizontal Citizen Platform)



📷 _ 일반 우수상

Wan Yuchen (Tianjin Renai College / CONTINUATION OF LIFE)

📷 _ 완공건축물부문 수상작

강기표 (건축사사무소 아체ANP / LINE25 강기표)

📷 _ 완공건축물부문 수상작

강대화 (건축사사무소 토탈 / 트루바이 생림 리모델링)

📷 _ 완공건축물부문 수상작

이봉두 (주)한미건축종합 건축사사무소 / W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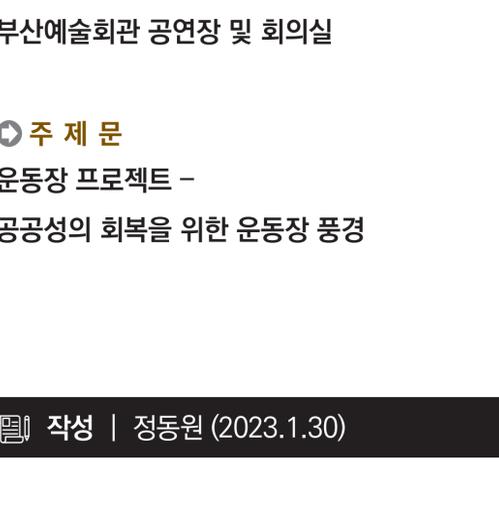
NEWS 청소년건축상상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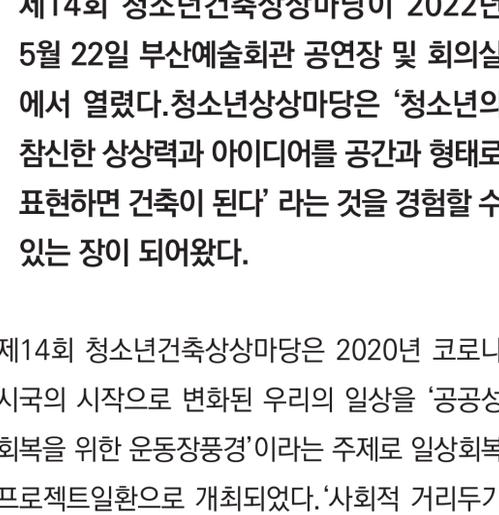
📷 _ 청소년건축상상마당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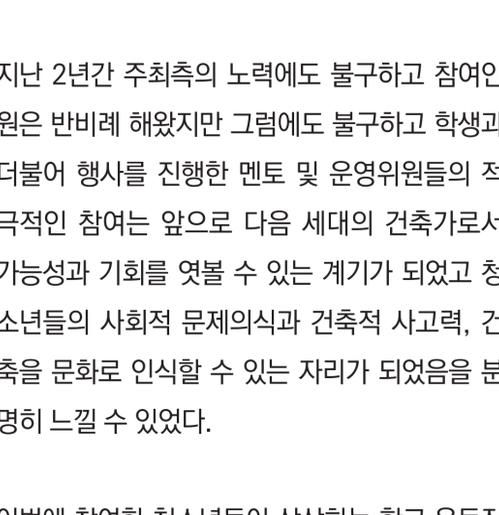
📷 _ 청소년건축상상마당 제작 3



📷 _ 청소년건축상상마당 심사



📷 _ 청소년건축상상마당 발표



📷 _ 청소년건축상상마당 시상식 (대상)

청소년건축상상마당 개요

📍 **행사일시**
2022년 5월 22일(일)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 **행사장소**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및 회의실

📍 **주제문**
운동장 프로젝트 -
공공성의 회복을 위한 운동장 풍경

📄 작성 | 정동원 (2023.1.3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부산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건축가회(회장 조서영)가 주관하는 제14회 청소년건축상상마당이 2022년 5월 22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및 회의실에서 열렸다. 청소년상상마당은 ‘청소년의 참신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공간과 형태로 표현하면 건축이 된다’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왔다.

제14회 청소년건축상상마당은 2020년 코로나 시국의 시작으로 변화된 우리의 일상을 ‘공공성 회복을 위한 운동장풍경’이라는 주제로 일상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건축’(2020년), ‘슬기로운 포스트코로나 주거생활’(2021년)의 힘든 코로나시국의 여정을 끝으로 참여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지난 2년간 주최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은 반비례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더불어 행사를 진행한 멘토 및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앞으로 다음 세대의 건축가로서 가능성과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의식과 건축적 사고력, 건축을 문화로 인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상상하는 학교 운동장의 모습들은 획일화된 디자인에 한정적인 공간과 기능을 넘어선 건축적 상상력으로 표현된 전시장으로 만들었으며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스케치하고 모형으로 공간을 표현하여 저마다 개성 있는 작품을 보내 앞으로 훌륭한 건축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또한 모았다.

이번 특강을 맡게 된 부산건축가회 강영주(건축사사무소 마운)는 참여한 학생들의 건축적관심과 이해도가 높아 코로나로 걱정했던 참여이식과 관심부족이단지 기우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4시까지 장장 7시간에 걸친 작업의 결과물의 심사는 부산건축가회 강영주, 허진우, 정동원, 박은정 위원이 맡았으며 대상(부산광역시장상)은 차하영 (센텀여고 3), 최우수상은(부산광역시 교육감상)박주명 (한얼고 3), 안세훈 (동천고 2), 우수상은(부산예총회장상, 부산건축가회회장상) 정현도 (금정고 3), 윤승범 (동천고 3), 박찬우 (동천고 2) 학생이 선정되었다.

	대상
	차하영 (센텀여고 3)
	작품명
	에너지하베스팅 운동장

생태모방적 곡선을 활용한운동장의 공공성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기존 건축가 못지않은 발표와 환경친화적인 사고로 심사위원들에게 많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
	박주명 (한얼고 3)
	작품명
	Local Green Playground

주민주어형 광장으로 담장 대신 기둥을 사용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무한한 가능성의 운동장을 만들었다.

	최우수상
	안세훈 (동천고 2)
	작품명
	운동장 플러싱

수평으로만 이루어진 학교운동장에 다양한 언덕을 만들어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었다.

평소 관심이 많은 환경분야를 건축에 적용시켰다는 차하영 학생(대상)은 ‘앞으로 건축에서도 환경적인 요소가 적극 반영되어 친환경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에 부산건축가회 조서영 회장은 홍보와 행사 지원을 통해 앞으로 부산의 건축계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생각과 행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협회 차원에서 발전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_ 청소년건축상상마당 시상식 (대상)

📷 _ 청소년건축상상마당 특강

NEWS 부산건축도시사진전



📷 _ 건축가의 안



📷 _ 부산건축도시사진전 전시

건축도시사진전 개요

📅 전시기간

2022년 10월 13일(목) ~ 10월 17일(월)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 주제 문

사람과 공간 (HUMANS & SPACE)

📝 작성 | 이주영 (2023. 01.31)

사람은 항상 공간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 그 공간은 자연, 도시, 건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서 편안함과 감동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도시 생활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사람들은 다양한 건축에서 살면서 서로 소통하며 희로애락을 경험한다.

이번 건축도시사진전은 「건축가의 顔」이라는 특별 전시와 건축도시사진전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건축가의 顔」은 부산건축가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산 건축가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자 부산건축가의 얼굴을 담고 기록하는 작업을 김홍희 사진작가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부산 건축가의 모습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건축도시사진전은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등 총 9개국에서 71점이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예전보다 작품 수가 줄었지만 주제인 사람과 공간을 잘 구현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심사에는 김홍희 사진작가, 강대화 건축가, 이길임 교수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총 71점의 출품작 중 금상 한 작품, 은상 두 작품, 동상 세 작품, 입선 29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금상에는 Mithail Afrige Chowdhury(방글라데시)의 「Pigeon in cage」가 수상하였고 “사람이 사는 공간과 사람 사이의 유대를 잘 표현한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 받았습니다.

은상에는 김민석(한국)의 「Curiosity」, Rejesh Dhar(인도)의 「Light and Shadow」, 동상에는 Muhammad Amdad Hossain(방글라데시)의 「Fatigue Sleep on the Boats」, 강순덕(한국)의 「Where it ends」, Charles Saswinanto(한국 거주)의 「Gwangalli Bridge」가 수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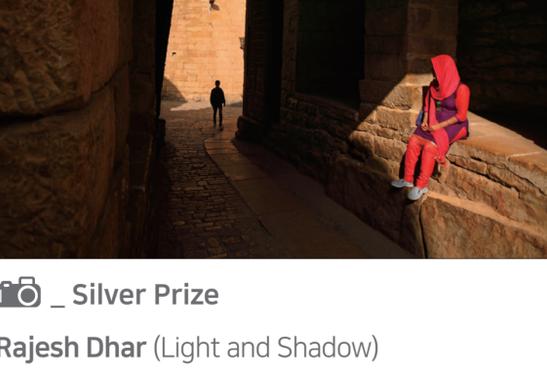
📷 _ Gold Prize

Mithail Afrige Chowdhury (Pigeon in C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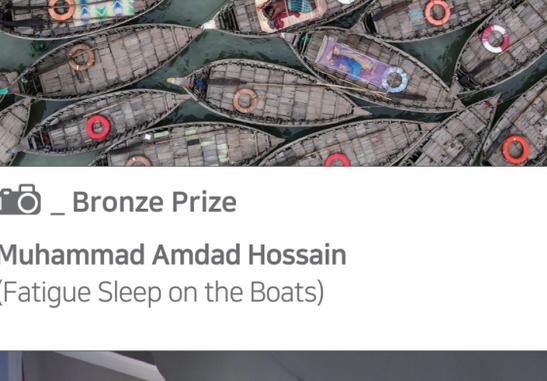
📷 _ Silver Prize

김민석 (Curiosity)



📷 _ Silver Prize

Rajesh Dhar (Light and Sha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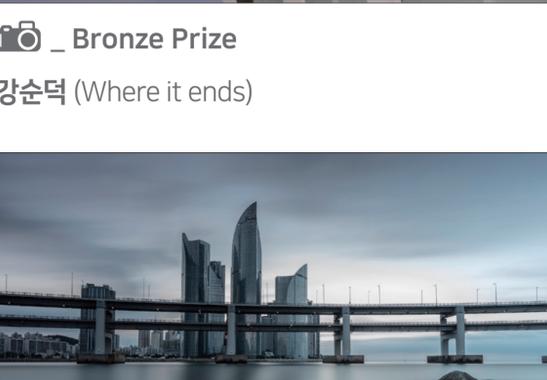
📷 _ Bronze Prize

Muhammad Amdad Hossain (Fatigue Sleep on the Boats)



📷 _ Bronze Prize

강순덕 (Where it 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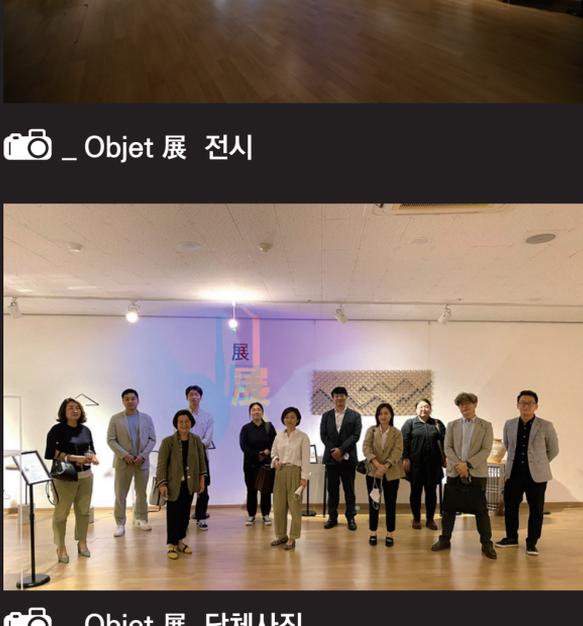


📷 _ Bronze Prize

Charles Saswinanto (Gwangalli Bridge)



젊은건축가위원회 전시 **Objet** 展



📷 _ **Objet** 展 전시



📷 _ **Objet** 展 단체사진

Objet 展 개요

🕒 행사기간

갈매랑 축제 **Objet** 展

2022년 9월 22일(목) ~ 9월 29일(목)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2022 부산건축제

2022년 10월 26일(수) ~ 10월 30일(일)

신세계 센텀시티점 중앙광장

📝 작성 | 젊은건축가위원회회장 조정훈

(2023. 01.24)

22년도 젊은 건축가회 오브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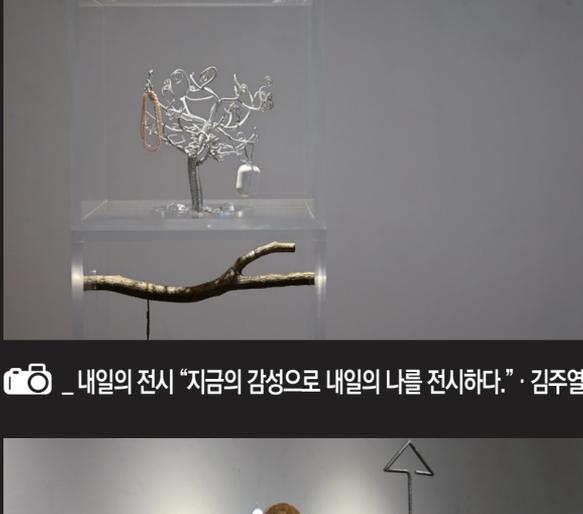
처음에 우리는 ‘건축 말고 다른 거 전시해 보고 싶다!’란 생각으로 시작하였다.

건축을 디자인 한다는 것은 삶을 디자인하는 행위라고 생각된다. 우리 삶의 반은 어떤 공간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공간의 질은 사람과 물건들에 의해 완성된다. 건축을 디자인 하는 건축가의 시선으로 그 속에 담길 물건을 디자인하면 어떤 것이 나올지 궁금해졌다.

치열하게 부산에서 건축하는 젊은 건축가들이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물, 물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표현해 보고자 했다.

물론 다들 힘들어 했다. 전시 주관하는 나 또한 주관만 하고 빠질까 생각할 정도였다. 몇몇 분은 사정상 못하게 되었지만, 대부분은 끝까지 해내고야 말았다. 막상 1차 전시인 갈매랑 축제의 건축가회 전시를 하고 나니 부딪함과 더 보완을 하고 싶은 욕심을 내는 분들도 있었다.

신세계백화점 부산건축제 전시까지 마무리하고 나니 생각보다 반응들이 좋았고, 전시하신 분들도 다들 부딪해 하셔서 기획한 입장에서는 다행이란 생각이었다. 아무튼 이런 기회로 전시를 같이하게 된 분들은 서로를 알아가고 협회의 소속감도 느낀 전시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



📷 _ 사물의 재구성 - reconstruction of things · 정재우, 김용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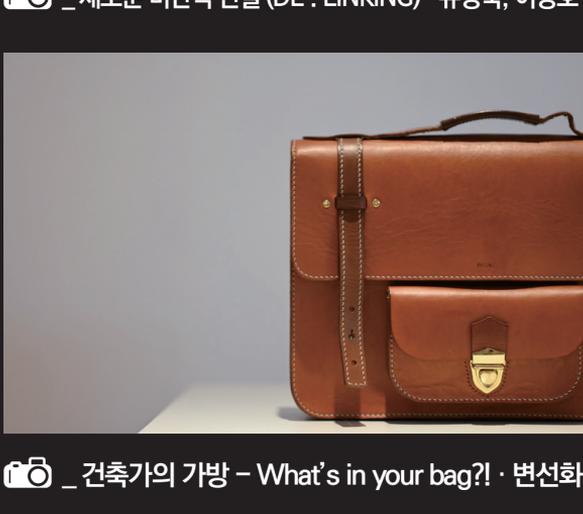
📷 _ 장(櫛) - 건축 자재를 활용한 제작가구 · 신주영



📷 _ Universe (우주) · 최미예



📷 _ 낙수효과 (落水效果) · 최새벌



📷 _ 내일의 전시 “지금의 감성으로 내일의 나를 전시하다.” · 김주열

📷 _ 콘크리트 & 이형철근 오브제 시리즈 · 조정훈

📷 _ 몽글몽글 펜던트 · 조윤경, 김동현

📷 _ OBJETOWER FOR CAT_mockup · 강영주

📷 _ 꽃담무늬 향아리_ 궁궐의 담장이 향아리가 된다면? · 황은혜

📷 _ 새로운 비판적 연결 (DE . LINKING) · 유창욱, 여창호

📷 _ 건축가의 가방 - What's in your bag?! · 변선화

NEWS 젊은건축가를 위한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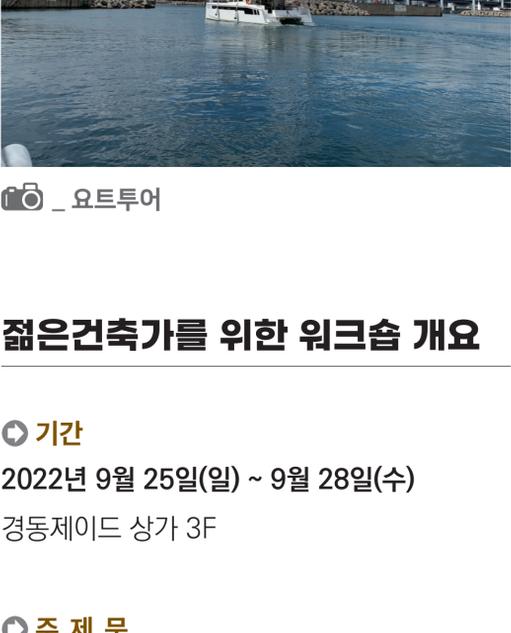
📷 _ 오리엔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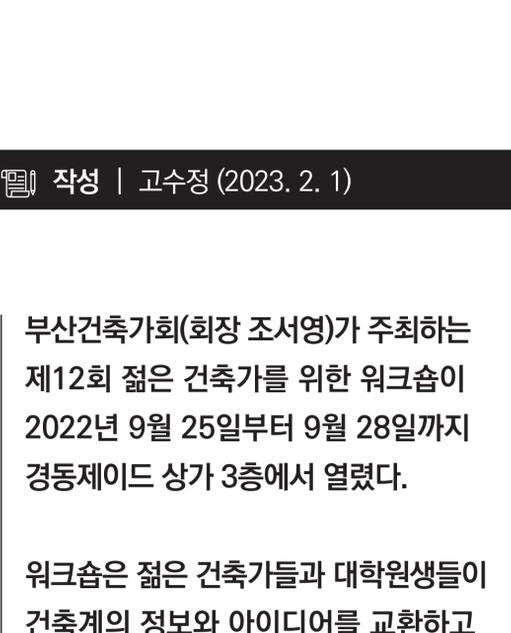
📷 _ 워크숍



📷 _ 워크숍 특강



📷 _ 워크숍 발표



📷 _ 요트투어

젊은건축가를 위한 워크숍 개요

📅 기간

2022년 9월 25일(일) ~ 9월 28일(수)
경동제이드 상가 3F

📌 주제 문

새로운 미래를 향한 메시지 -
미55보급창의 미래가치를 생각하다

📝 작성 | 고수정 (2023. 2. 1)

부산건축가회(회장 조서영)가 주최하는 제12회 젊은 건축가를 위한 워크숍이 2022년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경동제이드 상가 3층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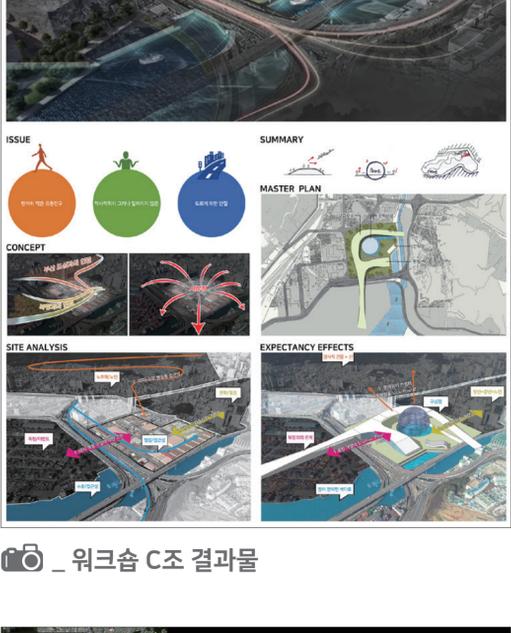
워크숍은 젊은 건축가들과 대학원생들이 건축계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친교를 쌓는 새로운 건축 문화를 만드는 장이 되었다.

젊은 건축가를 위한 워크숍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중국과 일본이 각국의 사정으로 참가가 힘든 상황에서 행사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한국만 참가하는 방식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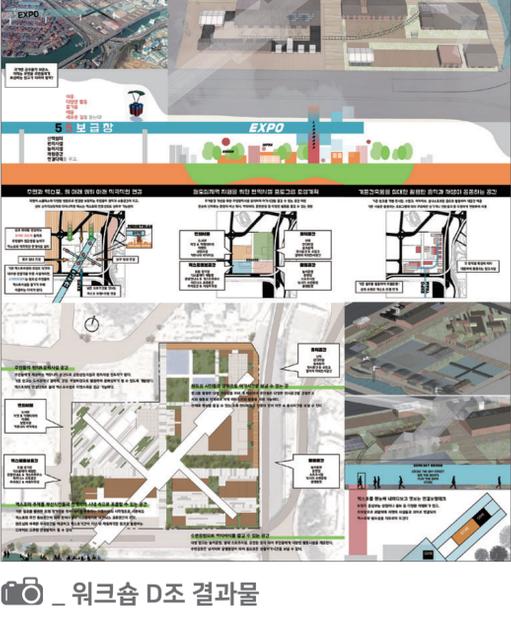
이번 워크숍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메시지 - 미55보급창의 미래가치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미55보급창의 이전과 더불어 기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북항 재개발사업과 2030 부산월드엑스포를 통해 선도적 가치를 지닌 미래지향적인 가치로서 미55보급창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특강은 김경수 선임연구위원(부산연구원)의 북항과 2030부산월드엑스포 추진동향이라는 내용으로 선정 대지와 아이디어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특강은 이기철 소장(아키텍케이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무소 운영과 건축작품을 통해 젊은 건축가들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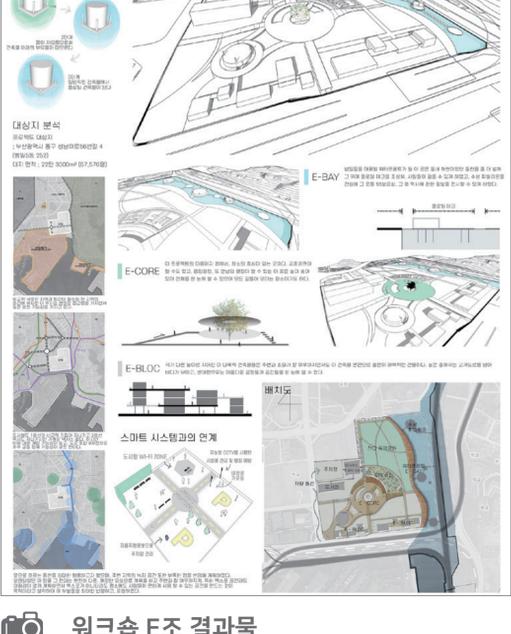
9/25(일)~9/28(수) 총 20명 5개조가 4일간에 걸친 작업의 결과물의 심사는 이기철 소장(아키텍케이 건축사사무소), 하호진 교수(경성대학교 건축학과), 남건수 과장(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과), 허진우 소장(디바이어스)이 맡았으며 최우수상은 E조(정선화, 김태성, 김지원, 황은혜)가 선정되었다.



📷 _ 워크숍 결과물 전시



📷 _ 워크숍 A조 결과물



📷 _ 워크숍 B조 결과물

📷 _ 워크숍 C조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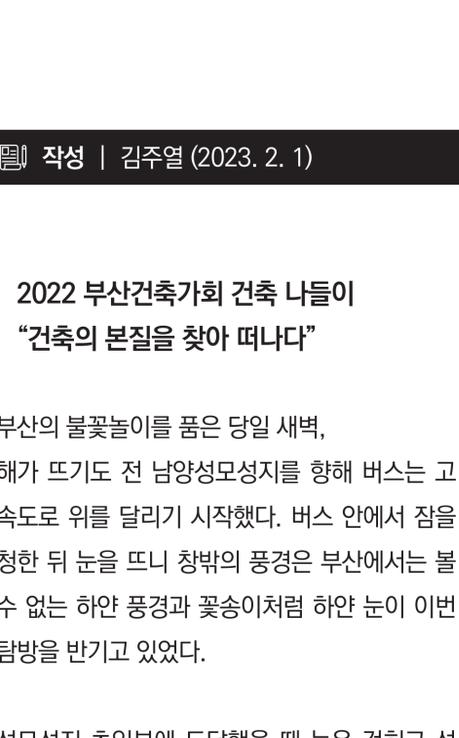
📷 _ 워크숍 D조 결과물

📷 _ 워크숍 E조 결과물

NEW TALK 건축탐방



📷 _ 남양성모성지 탐방



📷 _ LG아트센터 서울 탐방

건축탐방 개요

📍 탐방일정 및 장소

2022년 12월 17일(토)

화성 남양성모성지 / 서울 LG아트센터 서울

📝 작성 | 김주열 (2023. 2. 1)

2022 부산건축가회 건축 니들이 “건축의 본질을 찾아 떠나다”

부산의 불꽃놀이를 품은 당일 새벽,
해가 뜨기도 전 남양성모성지를 향해 버스는 고
속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버스 안에서 잠을
청한 뒤 눈을 뜨니 창밖의 풍경은 부산에서는 볼
수 없는 하얀 풍경과 꽃송이처럼 하얀 눈이 이번
탐방을 반기고 있었다.

성모성지 초입부에 도달했을 때 눈은 걷히고 성
모성지에 자리한 대성당은 성스럽고 눈부신 모습
으로 우리 탐방객을 맞이하고 있는 듯 했다.



📷 _ 접근로에서 본 대성당의 모습

천주교의 교리와 성스러움을 모르는 필자가 남양
성모성지의 대성당에 관한 글을 적는다는 것이
독자들이 반감을 느낄 수 있으나, 건축적 시각에서
필자의 느낌을 적는 것이니 이해 해주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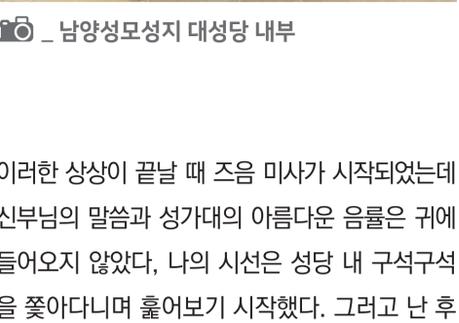
지금의 성모성지는 흥선 대원군의 1866년 병인
박해 때 순교자들이 끌려와 순교한 자리로 이를
기리기 위한 카톨릭 순교지로 알려져 있다.

1991년 10월 7일 로사리오의 남양성모성지
봉헌을 시작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이곳은 성스러운
자리에 틀림없을 것이다. 나중에 남양성모성지
대지가 자비의 블라디미르의 형상처럼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성모
마리아를 믿는 신자 및 신부님의 기도에 의한 것
인지? 모르겠으나 필자는 후자의 의미가 실현된
것으로 믿고 싶다.



📷 _ 남양성모성지 항공사진 | 자비의 성모 이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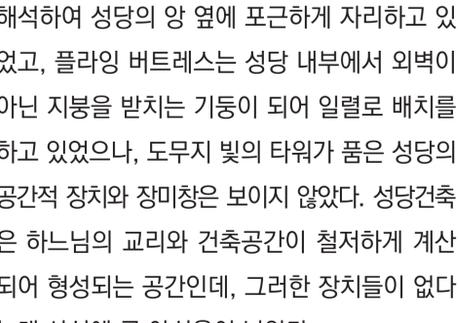
뭔가를 숨기고 있는 성모성당의 빛 타워를 향해
걸어가는 진입로는 일상의 산책로를 걷는 느낌이
었으며 초봉헌실의 외부에서 실내로 비춰지고 다시
진입로로 비춰지는 모습은 신자들에게 이 성지의
성스러움과 교리를 되새기게 하는 장치인 듯 했다.
이러한 장치는 불교의 산지가람에서 느낄 수 있는
(일주문-천왕문-불이문-대웅전) 그 무엇과 유사
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모든 종교가 가지는
본질적 교리가 비슷함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_ 초봉헌실 내부와 외부에 비춰지는 성모상

성당 전면의 모습은 원통형의 빛의 타워 메스
2개가 육중하게 우리를 맞이하였다. 육중한 메스,
벽돌과 석재 띠의 조화, 좌우의 대칭, 실내외
동일한 마감 등은 마리오 보타 거장의 건축언어가
필터링 없이 표현되어 있었다.

특히 빛의 타워는 중세 성당 첨탑의 의미가 부각
되고 사이 종탑과 세로로 긴 창 의 직선형의 배치는
하느님과 대화를 위해 기도를 하는 신자의 손을
형상화 한 것이라 생각된다.



📷 _ 기도하는 손 |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빛의 타워 양옆으로 난 출입구를 따라 성전의 공간
으로 들어가면 무량의 공간이 펼쳐지게 되는데
일반 성전에서 느낄 수 없는 인공조명의 반사광과
지붕재의 틈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의 조화는 공간의
깊이, 천장의 가벼움, 목재 루버의 따스함 등은
이 성전에 성스러운 빛의 향연으로 표현되고 있
었다. 또한 천주교의 교리와 빛이 건축적 상상과
장치로 승화되었다는 증거를 볼 수 있었다.



📷 _ 남양성모성지 대성당 내부

이러한 상상이 끝날 때 즈음 미사가 시작되었는데
신부님의 말씀과 성가대의 아름다운 음률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의 시선은 성당 내 구석구석
을 훑아다니며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후
이상점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중세 고딕성당
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축적 언어와 장치가
몇 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는 빛의 타워가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에게
주는 공간적 장치, 두 번째로 채플(소규모 예배당),
세 번째는 장미창, 그중에서도 장미창은 중세 성당
내부에 교리가 각인된 햇빛이 스테인 글라스에
비춰져 내부에 들어오면 하느님의 이야기가 실내
공간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신자들은 그
이야기를 보고 믿음과 신앙이 굳건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성당건축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건축적
장치들이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
포기를 하니 이제야 신부님이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눈을 감고 천주교 교리를
마음속에 담아보았다.

미사가 끝나고 성당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며 없던
그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 채플은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성당의 양 옆에 포근하게 자리하고 있
었고, 플라잉 버트레스는 성당 내부에서 외벽이
아닌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되어 일렬로 배치
하고 있었으나, 도무지 빛의 타워가 품은 성당의
공간적 장치와 장미창은 보이지 않았다. 성당건축
은 하느님의 교리와 건축공간이 철저하게 계산
되어 형성되는 공간인데, 그러한 장치들이 없
는데 사실에 큰 아쉬움이 남았다.

성전에서 나와 또 다른 성당공간을 탐방하며 없
었던 2개의 장치를 찾게 되었다. 그것을 알고
난 후 마리오 보타의 건축적 사상과 상상 그리고
신자들에게 대한 경이로움에 숙연해졌다.
그것은 빛의 타워 내 천창(장미창)이 그리는 천사의
이야기라는 것을 찾게 되었다.

필자가 상상을 해 보면 미사가 끝날 정오 즈음
타워 내부에 드리운 햇빛은 빛의 타워 내 벽돌
패턴과 질감에 드리우기 시작하고 짧은 시간 천사가
내려와 신자들에게 경이로움과 성스러움을 선물
(천사의 날개)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 _ 대성당 교단에 드리운 천사의 날개 (동아일보_문화)

필자는 이러한 건축적 노력들이 현시대 건축이
지향해야 할 건축의 본질이라 생각한다.
과거 건축이란 대다수가 돈, 그 시대의 패러다임,
권력 등을 표현하는 물리적 수단으로 발전되어
왔다. 성당건축은 하느님과 신자가 함께 대화,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특히 건축의
본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건축이 비록 물리적 공간이더라도 남양성모
성지와 같이 건축의 근본적 의미 즉 본질을 찾고
독창적인 건축언어와 장치들을 물리적 공간속에
녹여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건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모성지 대성당을 떠나는 버스에 오르는 필자는
마리오 보타 건축가에 대한 부러움과 더불어 왜
인지 모를 아쉬움으로 대성당을 몇 번 돌아보게
되었다. 나중에 부산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 아쉬움이 천사의 날개를 직접 보지 못한 것
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다음에 꼭 다시 찾으리라
기약하며 눈을 감고 천사의 날개를 상상해 보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시간 발해져 있던 필자의
건축적 생각과 마음이 이번 2022 부산건축가회
건축탐방 후 생기를 찾았다.

지금 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